

‘어금니 아빠’ 흉악범죄로 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란

“허린아이를, 그것도 딸 친구를 죽여놓고 본인은 아있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법은 너무 범죄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딸 친구 살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와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사람을 죽이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분노했다.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같은 흉악범죄에는 형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인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흉악범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때마다 ‘사형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준에게 서울고법은 1심 사형선고를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진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한국에선 사형이 선고된다 해도 집행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유영철,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들도 사형을 선고 받은 지 오래지만 현재 교도소에

흉악범죄 때마다 ‘사형’ 요구 목소리 커져 세계적 추세는 ‘폐지’…한국 ‘실질적 폐지’ ‘형법 본질적 기능은 엄벌…사회정의 부합’ ‘사형이 범죄 줄이는 실질적 효과는 없어’

수감 중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 판결이 나왔으면 집행을 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은 법리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판결문이 휴직조각인가”라고 반문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집행은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국의 사형 집행 중단은 인권 의식의 고양과 맞물려 사형제 폐지로 가는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198개국 중 104개국 사형을 폐했다. 한국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도 37개국이다.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를 보면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등 인권 후진국이란 평가를 받는 국가가 다수다. 주요 선진국 중에는 미국(20건)과

일본(3건)만 이름을 올렸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면 아예 폐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회에서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이 7차례나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국민 정서가 사형제 존치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폐지 논의는 시기가조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찬성’ 응답률은 70~90% 수준을 기록해왔다. 피해자의 가족을 심적으로 위로하고 흉악범죄를 사회 정의 차원에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다. 사형이 흉악범죄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기대감도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



수는 “형벌의 본질적 기능은 엄벌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에 계속 수감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형이 흉악범죄를 줄이는 실질적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목표 달성만 생각한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사형이 범죄를 예방해주리라고 기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

보다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가 원인이라면 조기 발견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또 후천적인 사이코패스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뉴스

이영학 사건에 부모들 불안도 양극화... “공포심 전염”



여중생 딸 친구 살해·사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된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천현장에서 주민이 현장검증을 지켜보고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피해 학생이 친구 집에서 살해를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 학부모들은 자책의 교우관계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친구 집도 믿을 수 없다”며 아이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취합하는가 하면 친구들의 가정환경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마다, 혹은 동네마다 다른 분위기다. 어느 정도 경계력을 갖춘 이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덜한 분위기다. 흉악범죄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도 양극화되는 추세다.

9살 아들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이모(41)씨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영학 사건으로 인한 불안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씨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변호

사, 방송사 유명 PD 등이 이 학교에 아이를 맡긴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편”이라고 털어놓았다. 반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학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는 학부모도 있다. 평소 아이들에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친구들을 보듬으

는 “헬리콥터맘, 캣거루맘을 조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내 자식 주위를 빙빙 돌면서 울타리를 쳐야 하는지 새삼 느꼈다”며 “아이 친구들의 가정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학부모들이 ‘부자 동네’라고 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영학 사건이 특히 케이스일 뿐 자녀들의 교우관계에 있어 경제적 수준에 따라 편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는 “부모들의 이같은 반응은 일종의 ‘공포심 전염’”이라며 “소득수준이 높은 동네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의 안전장비가 비교적 많이 설치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곧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가 적다고 보긴 힘들다”고 짚었다.

‘어금니 아빠’ 충격받은 부모들, 아이 친구 호구조사 서로 집안 아는 ‘그사세’ 사립초는 심리적 동요 덜해

라고 가르쳤건만 비뚤어진 가정사 때문에 친구를 해친 이영학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7세 딸을 유치원에 보내는 오모(36·여)씨는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과 어금니 아빠 사건을 접하면서 집값이 비싸도 학군 따라 이사하는 엄마들을 이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하는 폭력과 범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명망가 자제들이 모였다고 소문난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지난 6월 학교폭력 스캔들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이 그만큼 극대화됐다는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집단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소득이 높은 지역은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집단주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의 안전을 위한 집단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